한-아세안 공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권고안

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외교통상부와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 하에 “공예의 보존과 진흥 - 아시아 공예의 현재와 미래”라는 주제로, 2004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, 이천, 청주 등지에서 개최한 “2004 한-아세안 문화계인사 교류사업”의 참가자들은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:

- 다양한 기술과 스타일,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공예는, 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, 그 사회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이를 구성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표현을 반영한다;

- 공예산업은 지방 주민 - 특히 빈곤 지역의 여성과 청소년 - 의 경제 발전과 권익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;

- 공예교육과 기술훈련은 예술품의 창조를 위한 기술의 전달 뿐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온 가치와 생활양식을 전수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;

- 이번 사업에 참여한 11개 국가들은 풍부한 문화다양성을 공유하고 있으나, 그 가치와 독창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, 이 분야에 대한 정부와 공공 기관들의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;

따라서 우리는 해당 국가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:

1. 국가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이고, 집중적이며, 조화된 국가 공예정책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. 이러한 정책에는 동 분야에 대한 예산증액과, 공예의 교육, 발전, 보존의 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노력 등이 포함된다;

2. 지방 또는 국내 공예가들이 만든 상품을 지원하고, 이러한 공예품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모범사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공예산업을 촉진한다;

3.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예의 날을 선포하고 학교와 마을을 대상으로 ‘공예가 방문’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공예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인식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;

4. 공예가들이 문화유산의 보존, 디자인, 홍보, 상품 개발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;

5. 동 교류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는 아래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노력방안을 채택한다:

a. 국가 및 지역의 공예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아세안 수공예 진흥·개발 협회 (AHPADA) 및 유네스코 (UNESCO)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**한-아세안 공예 네트워크**를 수립한다;

b. 공예품의 품질 인증 및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**유네스코 우수작품 인증서 프로젝트** (UNESCO Seal of Excellence Project)를 (현재 실시중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)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하여 실시한다;

c. 한국과 아세안의 교육 및 훈련 기관의 공예 작가,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**교류 프로그램**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한다;

d. 매년 2월을 **"지역 공예의 달"**로 선포한다.

2004년 12월 7일, 한국 서울에서

참가자 일동

브루나이 _____
캄보디아 _____
인도네시아 _____
한국 _____
라오스 _____
말레이시아 _____
미얀마 _____
필리핀 _____
싱가포르 _____
태국 _____
베트남 _____
AHPADA _____